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

오 유 라*

숙명여자대학교

성별, 지위, 계층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상이하다. 이에 주어진 자유시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을 표현하는 시간빈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시간 사용이 다르다는 논의에 기반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9차 웨이브(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남성의 시간빈곤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가족요인으로 미취학 자녀 수와 취학 자녀 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가족생활 행복도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삶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사회 환경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맞벌이 부부, 시간빈곤,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 다중회귀분석

* 주저자: 오유라/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02-2077-7030/E-mail: oura11@naver.com

I. 서론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 각 개인의 성별, 지위, 계층 등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 매우 상이하다. 이에 성별, 지위, 계층 등에 의해 각기 다른 시간 사용으로 각기 다른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주어진 자유시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고, 제한된 경우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시간빈곤이 등장하게 되었다(Vickery, 1977).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성별, 지위, 계층에 따라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Douthitt, 2000; Warren, 2003; Choudhary & Parthasarathy, 2007, Harvey & Mukhopadhyay, 2007; Sidh & Basu, 2011), 그중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하여 남성은 노동시장에, 여성은 가정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별 역할이었다(장지연, 2004). 하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사회보장 수급권 요구가 커지면서 이인소득자모델(Dual-earner model)로 전환하게 되었다(김안나, 2006; 오혜은, 202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성으로, OECD 회원국은 1991년~2016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한국은행, 2018). 한편,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교주의적 사상과 전통적 성역할 인식에 기반한 성별 역할 분업의 변화가 쉽지 않았다(서신영, 강인, 2019; 오유라, 2021; 안미영, 2022). 이에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에서 노동자와 돌봄자 역할이 동시에 부여됨에 따라 남성과 비교해 시간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이는 곧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되면서 이를 더 이상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서 개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엄명용, 김효순, 2011; 이무선, 2020). 이에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급여 수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의 성별 격차, 여성의 이중 역할 부담과 같은 문제적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기준 20세 이상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25분인데 반해 남성은 64분으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통계청, 2024). 이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약 4배 가까이 많다는 현실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루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개인 내적으로는 우울, 불안, 삶의 만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성국 외, 2017; 김명순, 남지은, 2021; 양은선, 김연하, 2021; 방지원 외, 2022), 노동시장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불안한 일자리로의 전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강명희, 2020; 최세림, 곽은혜, 2020; 오유라, 2021).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야기시키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출산 기피 요인 중 하나로도 논의되고 있다(김연하 외, 2019; 최세림, 곽은혜, 2020; 방지원 외, 2022). 즉,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여성의 삶에 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여성의 시간빈곤과 일-가정 양립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국내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박예은 외(2016) 연구에서

기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워킹 맘의 시간빈곤이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시간빈곤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시간빈곤자나 시간비빈곤자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 아니라 시간빈곤을 연속형 변수로 측정함으로써 시간빈곤 수준이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부부의 시간빈곤을 여성의 시간빈곤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김미영, 박미려, 2017). 즉, 시간빈곤이라는 것은 결국 유급노동 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포함하여 남은 자유시간을 바탕으로 측정하기에 여성 뿐 아니라 그 남편의 시간빈곤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여성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시간빈곤 정의에 기반한 정교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남편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환경 조성 과 개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빈곤

하루 24시간은 성별, 인종, 직업 등과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 시간의 정량적 수치는 모두 동일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온종일 일을 하다가 겨우 잠잘 시간 3시간인 사람과 하루 3시간 일을 하고 이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사람이 체감하는 시간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간을 살펴보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시간빈곤(time poor)이다. 시간빈곤이란 말 그대로 '시간'과 '빈곤'의 합성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노혜진, 박나리, 2022). 이에 시간빈곤에 대한 개념은 주로 계층 간 시간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의 차이를 논의하는 데 활용되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이 사회적지위, 계층, 성별에 따라 활용하는 형태와 재량권이 다르다고 접근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Warren, 2003; Vickery, 1977). 특히, 성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성별 역할 분업으로 인해 여성에게 가중되는 이중 역할 부담이 여성의 시간빈곤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해왔다(Douthitt, 2000; Choudhary & Parthasarathy, 2007, Harvey & Mukhopadhyay, 2007; Sidh & Basu, 2011). 성별에 따른 시간 분배와 관련해서 Becker는 가계생산이론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노동, 가계, 여가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가계는 가정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기혼 여성은 이를 염두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Becker, 1965).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은 더 짧고 가사노동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을 설명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시간빈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마다 사용하는 분석자료, 논점 등에 따라 조작적 정의가 다소 상이하다. 먼저, 경제학에 기반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를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시간빈곤을 정의하였다. 이때 자유시간이라는 시간 정의는 하루 총 시간 가운데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 필수유지시간(수면, 식사 등)을 빼고 남은 시간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

게 계산한 자유시간의 임계선이 50~80% 수준 이하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정의 내린 연구들이 존재한다(Williams et al, 2016; Bardasi et al, 2006, Arora, 2015; 오혜은, 2017; 박세정, 2020). 하지만, 연구자료 및 연구목적 등에 따라 필수유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시간빈곤을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노혜진, 박나리, 2022). 이와 같은 경우 시간빈곤에 대한 정의를 총 노동시간의 중위값을 활용하며, 이때 총 노동시간의 중위값 130~150%를 초과하는 경우 시간빈곤자로 정의한다. 이 밖에도 하루 중 활용 가능한 시간을 이상적 필수생활시간 값으로 나누었을 때 값이 1보다 작을 경우 시간빈곤 수준이 심각하다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박예은 외, 2016).

한편, 시간빈곤 개념을 활용하여 시간빈곤이 기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박예은 외(2016)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빈곤을 연속형 변수로써 그 수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여성 본인의 연령, 학력, 건강수준, 미취학 자녀 수, 초중고 자녀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시간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만족도가 감소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정교한 정의에 의한 산출이 아닌 상대적인 시간사용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여성의 시간빈곤만을 측정하였다. 이 밖에도 시간빈곤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김미영 외(2017)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 둔 맞벌이 가정의 시간빈곤 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김미영 외(2017) 연구에서는 시간빈곤집단과 시간비빈곤집단 간의 삶의 만족을 평균만 비교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시간빈곤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인 개인자유시간의 중위값의 50~80% 수준이 아닌 중위값보

다 크면 시간빈곤자, 크지 않으면 시간비빈곤자로 정의하는 등 시간빈곤 측정을 정교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여성의 시간 사용과 그 영향에 집중하였고, 또한 시간빈곤의 개념적 기준이 불분명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음 두 가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시간빈곤의 정의를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기준(총 노동시간의 중위값 130~150%)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시간빈곤에 대한 개념 및 측정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시간이 서로 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의 시간빈곤을 함께 분석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시간 부족만을 원인으로 보는 기존 접근에서 나아가 가족 내 시간 분배가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 간 시간 구조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닌 '부부라는 가족 단위의 시간불평등'으로 해석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2. 일-가정 양립과 영향 요인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 또한 변화하면서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에서 이인소득자모델(Dual-earner model)로 변화하고 있다(김안나, 2006; 오혜은, 2024).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과 가정 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유라, 2021; 안미영, 2022).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우리사회 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대표적인 사회문재인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여성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결국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연하 외, 2019; 최세림, 곽은혜, 2020; 방지원 외, 2022), 여성 개인의 우울, 정신 압박, 삶의 질 등 부정적인 감정을 높인다는 연구(김성국 외, 2017; 김명순, 남지은, 2021; 양은선, 김연하, 2021; 방지원 외, 2022)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장생활에까지 영향을 밝힌다는 결과도 존재한다(강명희, 2020; 최세림, 곽은혜, 2020; 오유라, 2021). 이에 일-가정 양립 갈등 경험이 많을수록 이직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등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삶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 개인, 가족, 근로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이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영금, 2005; 원숙연, 2015). 다음 가족 요인으로 남편의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근로환경의 영향(정영금, 2005; 원숙연, 2015), 취학 및 미취학 자녀 유무(장유나 외, 2020; 김희경, 신지민, 2023)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및 행복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원숙연, 2015; 김은경, 심준섭, 2016; 김경미, 계선자, 2018). 마지막으로 여성의 근로환경 요인으로 근로유무, 정규직 유무, 근로소득, 근로시간이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원숙

연, 2015; 장유나, 유미리, 홍세희, 2020; 김희경, 신지민, 2023).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주요 영향 요인인 개인, 가족, 근로환경 요인 외에도,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변수로 '시간빈곤'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시간빈곤이 앞선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시간빈곤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즉, 유급노동시간은 개인 및 근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무급노동시간은 가족 요인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한편, 시간빈곤 변수를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만족을 살펴보는 연구는 대부분 여성의 시간빈곤에 한정되어 있었고, 남편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박예은 외, 2016; 김미영, 박미려, 2017). 하지만, 본 연구가 남편의 시간빈곤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남편의 장시간 유급 노동이 결국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여성의 일-가정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기존의 진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마다 영향 요인 변인이 다소 상이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요인과 함께 여성의 개인 요인과 가족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세부 변인들은 이어지는 연구방법의 변수정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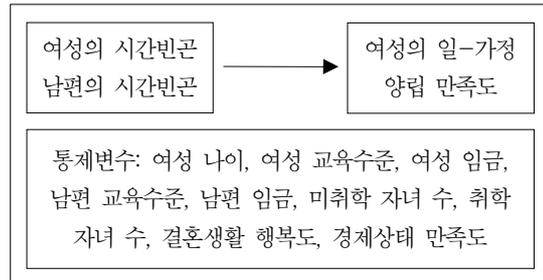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였으며, 이 밖에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과 감정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조사가 2006년부터 여성과 남성의 시간 사용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한 생각과 감정 등을 모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어 분석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여성과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하루 일과 시간을 세세히 묻는 자료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가 존재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일-가정 양립 만족도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조사가 완료된 여성가족패널 9차 웨이브(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앞선 언급과 같이 맞벌이 부부로, 연구모형에 모두 응답한 자로 설정하였다. 이 상의 연구 대상자 정의 및 분석 절차에 따라 맞벌이 부부 2,252쌍이 분석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 즉 여성의 시간빈곤과 남편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이후 본 연구의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변수 간의 관계를 다중공선성 및 상관관계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고,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7.0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 변수설명

1) 독립변수: 여성의 시간빈곤, 남편의 시간빈곤

시간빈곤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상이하다. 이에 이론적 배경에서 시간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살펴보았으며, 노동경제학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자유시간 임계선 50~80% 이하인 자로 주로 정의한 바 있다(박세정, 2020; 신영민, 2021). 하지만, 이는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과 함께 필수 시간(수면, 식사 등)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필수시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총 노동시간(유급노동시간+무급 노동시간)을 활용하여 시간빈곤을 정의할 수 있다(노혜진, 박나리, 2022). 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총 노동시간의 중윗값 130~150%로 설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중윗값 150%에 대한 설정이 비교적 엄격하다는 부분을 함께 제시하여 이를 130%로 측정하기도 하였다(노혜진, 박나리, 2022). 이에 본 연구는 총 노동시간의 중윗값 130~150%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0% 기준은 엄격하고, 130%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범위 내에서 중간값인 140%를 기준으로 삼아 통계적 안정성과 해석상의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기준은 하루 일과를 고려한 부분

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인 여성과 남성의 총 노동시간이 각각 526.82분, 505.78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140%는 약 12시간 정도로 하루 중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에 이를 투입한다는 것은 수면시간(7~8시간) 및 필수시간(식사 및 이동 2시간 내외)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유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에 시간빈곤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빈곤에 대한 변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총 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세부적으로 총 노동시간에 대해 1일 '분'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시간빈곤 정의에 따라 총 노동시간 중윗값 140% 이상인 경우 "1. 시간 빈곤자", 140% 미만인 경우 "0. 시간 비빈곤자"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시간빈곤에 대한 변수 정의

시간빈곤 측정방법	변수 정의
여성의 시간빈곤 총 노동시간 중윗값 남편의 시간빈곤 × 140%	• 140% 이상인 경우: 1. 시간 빈곤자 • 140% 미만인 경우: 0. 시간 비빈곤자

2) 종속변수: 일-가정 양립 만족도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었다. 해당 항목은 단일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1. 매우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함"으로 정의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여성 나이, 여성 교육수준, 여성 임금, 남편 교육수준, 남편 임금, 미취학 자녀 수,

취학 자녀 수, 결혼생활 행복도, 경제상태 만족도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남편 요인, 자녀 요인, 가족에 대한 주관적 느낌 등을 포함하였다. 변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나이는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교육수준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변환하였다. 여성의 임금은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해 로그화시켜 투입하였다. 남편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정의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남편의 교육수준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변환하였고, 남편 임금도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해 로그화시켜 투입하였다. 이어서 자녀 요인의 경우 미취학 및 취학 자녀 수를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고 있어 그대로 활용하였다.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인 행복도는 10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가족 내 경제상태 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한 상태로 측정되고 있어 이를 역문항으로 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기혼 맞벌이 부부로, 이들의 일반적 사항 및 주요 변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여성의 연령대는 50대 이상(57.37%), 40대(34.37%), 40대 미만(8.26%) 순으로 많았으며, 남

편 또한 50대 이상(69.45%), 40대(25.18%), 40대 미만(5.37%)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54.13%)가 가장 큰 비중을, 대학원 졸업 이상(3.51%)을 가장 작은 비중을 보였다. 남편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46.63%)가 가장 큰 비중을, 대학원 졸업 이상(3.51%)이 가장 작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부의 시간빈곤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의 시간비빈곤자(92.05%)가 시간빈곤자(7.95%)보다 많았으며, 남편 또한 시간비빈곤자(98.67%)가 시간빈곤자(1.33%)보다 많았다. 이 때 세부적으로 시간빈곤자 정의에 활용된 여성과 남편의 총 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다음 <표 3>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여성이 남편에 비해 총 노동시간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유급노동시간은 남편이 여성에 비해 더 길었지만, 무급노동시간에서 여성이 남편에 비해 더 길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더 많다는 점이다.

부부의 근로환경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월 평균 임금 로그값은 5.22($SD=0.63$), 남편의 월 평균 임금 로그값은 5.76($SD=0.66$)으로 나타나 남편의 월평균 임금이 여성의 월 평균 임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사항으로 미취학 자녀 수는 평균 0.08 ($SD=0.33$)명, 취학 자녀수는 평균 0.59($SD=0.86$)명이었다. 여성의 가족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도는 평균 3.18($SD=0.69$), 여성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6.92($SD=1.21$), 여성의 가족 내 경제상태 만족도는 평균 2.94($SD=0.6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의 시간빈곤 상태별 취학 및 미취학 자녀 수를 <표 4>에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시간빈곤자에서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N=2,252

변수	빈도(명)	비율(%)	
여성 연령	40세 미만	186	8.26
	40세 이상 50세 미만	774	34.37
	50세 이상	1,292	57.37
남편 연령	40세 미만	121	5.37
	40세 이상 50세 미만	567	25.18
	50세 이상	1,564	69.45
여성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19	54.13
	전문대 졸업	402	17.85
	대학교 졸업	572	25.40
	대학원 졸업 이상	59	2.62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50	46.63
남편 교육수준	전문대 졸업	302	13.41
	대학교 졸업	821	36.46
	대학원 졸업 이상	79	3.51
여성 시간빈곤	시간 비빈곤	2,073	92.05
	시간 빈곤	179	7.95
남편 시간빈곤	시간 비빈곤	2,222	98.67
	시간 빈곤	30	1.33
미취학 자녀 수	평균(표준편차)=0.08(0.33), 최소값=0, 최대값=3		
취학 자녀 수	평균(표준편차)=0.59(0.86), 최소값=0, 최대값=4		
여성 월평균 임금	평균(표준편차)=5.22(0.63), 최소값=0, 최대값=7.00		
남편 월평균 임금	평균(표준편차)=5.76(0.66), 최소값=0, 최대값=7.60		
일-가정 양립 만족도	평균(표준편차)=3.18(0.69), 최소값=1, 최대값=5		
결혼생활 행복도	평균(표준편차)=6.92(1.21), 최소값=2, 최대값=10		
경제상태 만족도	평균(표준편차)=2.94(0.64), 최소값=1, 최대값=5		

<표 3> 여성과 남편의 시간빈곤 관련 변수 세부 현황

구분	세부현황
여성 총 노동시간	평균(표준편차)=526.82(153.23), 최소값=46.29, 최대값=1263.43
여성 유급노동시간	평균(표준편차)=446.67(149.75), 최소값=12, 최대값=1176
여성 무급노동시간	평균(표준편차)=80.15(45.53), 최소값=0, 최대값=428.57
남편 총 노동시간	평균(표준편차)=505.78(77.48), 최소값=145.71, 최대값=961.14
남편 유급노동시간	평균(표준편차)=484.13(72.21), 최소값=120, 최대값=900

<표 4> 여성과 남편의 시간빈곤 상태별 취학 및 미취학 자녀 수

구분	세부현황	
여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08(0.31), 최소값=0, 최대값=2	
	여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17(0.48), 최소값=0, 최대값=2
미취학 자녀 수	남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08(0.33), 최소값=0, 최대값=3
	남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14(0.36), 최소값=0, 최대값=1
여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61(0.87), 최소값=0, 최대값=4	
	여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50(0.85), 최소값=0, 최대값=3
취학 자녀 수	남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60(0.87), 최소값=0, 최대값=4
	남성 시간빈곤자	평균(표준편차)=0.51(0.85), 최소값=0, 최대값=3

2. 다중공선성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전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VIF

값으로 확인한 결과, 평균 1.41, 최솟값 1.01(남편의 시간빈곤), 최댓값 2.23(여성 연령)으로 나타났다. 즉, VIF 값이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변수들 간의 관계 최솟값 0.002(여성 연령과 남편 시간빈곤 간의 관계), 최댓값 0.506(여성 연령과 취학 자녀 수)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0.6을 넘는 변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여성 시간빈곤과 남편 시간빈곤 0.066($p < .001$), 여성 시간빈곤과 일-가정 양립 만족도 -0.126 ($p < .001$), 남편 시간빈곤과 일-가정 양립 만족도 0.003 ($p < .001$)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여성과 남편 각각의 시간빈곤을 측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으며, F 값 24.95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본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10.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빈곤 여성의 경우 시간빈곤 여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beta = -0.11$, $p < .001$), 한편, 시간빈곤 남편을 가진 여성은 시간빈곤 남편을 가진 여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성에게 있어 본인의 시간빈곤 유무가 일-가정 양립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여성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요인,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운데 여성의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

수, 결혼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beta=0.09, p<.001$). 한편, 가족 내 미취학 자녀 수는 많을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beta=-0.06, p<.01$).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beta=0.24, p<.001$). 마지막으로 여성의 가족 내 경제상태 만족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beta=0.13, p<.001$).

<표 5>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N=2,252

Variables		β	SE	t
독립변수	여성 시간빈곤	-0.11	0.05	-5.43***
	남편 시간빈곤	0.02	0.12	0.84
통제변수	여성 나이	-0.03	0.00	-1.15
	여성 교육수준	0.09	0.02	3.35***
	여성 소득	-0.02	0.03	-0.85
	남성 교육수준	-0.02	0.02	-0.59
	남성 소득	-0.03	0.02	-1.45
	미취학자녀수	-0.06	0.05	-2.60**
	취학자녀수	-0.04	0.02	-1.75
	결혼생활행복도	0.24	0.01	11.64***
	경제상태만족도	0.13	0.02	6.08***
<i>R</i>		0.109		
<i>R</i> ²		0.105		
<i>F</i> (11, 2240)		24.95***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 시간은 동일하지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은 저마다 상이

하다. 특히, 본 연구는 성별 역할분업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자유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는 시간빈곤을 총 노동시간의 중윗값 140%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여성과 남편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시간빈곤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시간빈곤 여성의 경우 시간빈곤 여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여성의 개인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교육수준, 결혼생활 행복도, 경제상태 만족도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행복도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기존의 여성의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일-가정 양립 만족과 연관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였다(원숙연, 2015; 김은경, 심준섭, 2016; 김경미, 계선자, 2018). 셋째, 여성의 가족 요인 가운데 미취학 자녀 수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는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기존의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론이었다(장유나, 유미리, 홍세희, 2020; 김희경, 신지민, 2023).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함의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 영향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여성 본인의 시간빈곤만이 본인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여성과 남편의 시간빈곤을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이들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선행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지닌 여성으로 설정하여, 여성 본인만의 시간 빈곤이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박예은, 윤미, 이예솔, 이효진, 정익중, 2016).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의 시간 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부의 시간빈곤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의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여성 본인의 시간 빈곤만이 본인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에게 부과된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역할부담이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다(Douthitt, 2000; Choudhary & Parthasarathy, 2007, Harvey & Mukhopadhyay, 2007; Sidh & Basu, 2011).

그렇다면, 왜 남편의 시간빈곤 여부 변수는 영향력이 부재하였을까? 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 먼저, 분석 대상 가운데 남편의 시간빈곤 비율이 1.55%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도출하기 어려운 표본 구조였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여전히 남아있는 성별 역할 분업은 남편의 총 노동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의 구성이 대부분 유급노동이기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실질적인 자원이나 지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편의 총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505.78분이었는데 이 중 유급노동시간이 484.13분(95.7%)를 차지하는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평균 21.65분(4.3%)에 불과하였다. 반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26.82분이었으며, 이 중 유급노동시간은 446.67분(84.8%), 무급노동시간은 80.15분(15.2%)이었다. 즉, 남성의 시간빈곤은 유급노동 중심의 시간 구성되어 있어 가족 내 돌봄이나 가사

분담의 구조와는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기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 가족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시간빈곤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부담이 주된 원인이라고 논의되고 있다(Harvey & Mukhopadhyay, 2007; Sidh & Basu, 2011). 본 연구 결과 여성들의 시간 빈곤은 결국 이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의 시간빈곤 완화를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직장과 집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시간 지원 정책과 가정 내에서의 시간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실질적으로 본 연구결과 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 2023년 기준 국내 여성 주당 평균 근로시간 35.8시간, 남성 41.3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길게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24). 하지만, 우리나라 내 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연근무제(선택적 및 시간적 근무시간제, 재량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용률에 2배 가까이 된다(김기민, 2023). 여기서 우리나라는 성별 기업규모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상위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직원 비율이 73.8%인데 반해 여성은 26.2%에 불과하였다(GTT, 2022). 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추론

해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 기간이 한정적이고 급여 또한 삭감된다는 점에서 제도 이용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의 경우 기간의 제한과 급여 보전 문제에 대한 개선,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시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가정 내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사를 지원 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돌봄과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 서울시의 경우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울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임산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서울특별시, 2025). 이에 이용 가구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가사 서비스를 월 바우처 한도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5).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총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는 이유가 근로시간이 아닌 가사노동시간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분은 여성의 시간빈곤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이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확대와 함께 이후 지원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비교적 국내의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빈곤을 적용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당 개념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부부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성 본인 뿐 아니라 공동 양육자로서 남편의 상황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또한 시간빈곤 변수 정의에 대한 한계는 지니고 있다. 시간빈곤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상이한 가운데 본 연구는 시간빈곤에 대한 이분형 범주로 구분한 정의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시간빈곤자와 비빈곤자 간 10분 차이로도 구분지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남편의 시간 빈곤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부재하였는데 이는 남편의 시간 빈곤이 독립적인 설명변수로 작용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남편의 시간빈곤과 여성의 시간빈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선행연구에서는 기혼 부부에 대한 섬세한 시간 빈곤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희 (2020).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6), 171-181.
<https://doi.org/10.9708/jksoci.2020.25.06.171>
- 김기민 (2023).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체의 근로 조건 비교. KLI PANEL Brief.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경미, 계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03-119.
<https://doi.org/10.7466/JKHMA.2018.36.4.103>
- 김명순, 남지은 (2021).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와 그릿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6(4), 331-352.
<https://doi.org/10.18205/kpa.2021.26.1.016>
- 김미영, 박미려 (2017).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시간빈곤 수준과 삶의 질: 개인유지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

- 비교.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45-55. <https://doi.org/10.6115/fer.2017.004>
- 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https://doi.org/10.14400/JDC.2017.15.3.267>
- 김안나 (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1), 37-68.
- 김연하, 장욱, 서홍우 (2019).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균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육아정책연구*, 13(1), 81-98. <https://doi.org/10.5718/kcep.2019.13.3.81>
- 김은경, 심준섭 (2016).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30(4), 323-347. <https://doi.org/10.17327/ippa.2016.30.4.013>
- 김희경, 신지민 (2023).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성별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1), 223-250. <https://doi.org/10.53865/KSPA.2023.5.34.1.223>
- 노혜진, 박나리 (2022). 20년간 한국사회의 노동 시간 변화: 노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불평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8(3), 291-326.
- 박세정 (2020). 소득 계층에 따른 시간 빈곤 결정 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40(1), 206-237. <https://doi.org/10.15709/hswr.2020.40.1.206>
- 박예은, 윤미, 이예술, 이효진, 정익중 (2016). 시간빈곤이 일가족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35-56. <https://doi.org/10.18859/ssrr.2016.05.32.2.35>
- 방지원, 최보운, 유성경, 김수영 (202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혼 만족에 의해 조절되는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0(3), 55-73. <https://doi.org/10.7466/JFBL.2022.40.3.55>
- 서선영, 강인 (2019).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미래사회*, 10(1), 65-81. <https://doi.org/10.22987/jifso.2019.10.1.65>
- 서울특별시. (2025).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통계청. (2023). “2022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56. (검색일: 2024.08.20)
- 안미영 (2022). 한국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과 경제활동참여. *아시아여성연구*, 61(1), 175-210. <https://doi.org/10.14431/jaw.2022.4.61.1.175>
- 엄명용, 김효순 (2011). 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한국인구학*, 34(3), 179-209.
- 양은선, 김연하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 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3), 1-14. <https://doi.org/10.7466/JFBL.2021.39.3.1>
- 오유라 (2021). 부부의 돌봄노동 젠더불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4(2), 121-138. <https://doi.org/10.22417/DPSS.2021.10.14.2.121>
-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https://doi.org/10.15855/swp.2017.44.1.161>
- 오혜은 (2024). 여성의 고용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본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모형의 적용: 1997-2008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2(1), 281-309. <https://doi.org/10.22924/jhss.32.1.202402.012>
- 원숙연 (2015). 기혼 취업여성이 인식하는 일-가정 상호작용과 영향요인의 차별성-정책적 함의

- 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2), 309-335.
- 이무선. (2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제언. 인문사회과학연구, 28(1), 113-128.
<https://doi.org/10.22924/jhss.28.1.202008.006>
- 장유나, 윤미리, 홍세희 (2020). 기혼여성근로자의 성역할인식이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아시아여성연구, 59(2), 115-155.
<https://doi.org/10.14431/jaw.2020.08.59.2.115>
- 장지연 (2004).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 38(3), 177-200.
- 정영금 (200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3(4), 113-122.
- 최세림, 박은혜 (2020). 출산과 여성노동.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24). “남녀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2. (검색일: 2024.08.10)
- 통계청. (2024) “가사노동시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4232>. (검색일: 2024.08.10.)
- GTT KOREA. (2022). “지난해 50대기업 평균급여 9400만 원... 남녀 성비-급여차 여전”. (기사일: 2022.03.25)
- 한국은행. (2018).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서울: 한국은행
- Arora, D. (2015). Gender differences in time-poverty in rural Mozambique. *Review of Social Economy*, 73(2), 196-221
- Bardasi, E., & Wodon, Q. (2010). Working long hours and having no choice: Time poverty in Guinea. *Feminist Economics*, 16(3), 45-78.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Choudhary, N., & Parthasarathy, D. (2007). Gender, work and household food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523-531.
- Douthitt, R. A. (2000). “Time to do the chores?” Factoring home-production needs into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 7-22.
- Harvey, A. S., & Mukhopadhyay, A. K.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7-77.
- Mogilner, C., Chance, Z., & Norton, M. I. (2012). Giving time gives you time. *Psychological Science*, 23(10), 1233-1238.
- Kim, M. (2023).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OECD Average Annual Hours Worked: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 Sidh, S. N., & Basu, S. (2011). Women’s contribution to household food and economic security: A study in the Garhwal Himalayas, India.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31(2), 102-111.
- Williams, J. R., Masuda, Y. J., & Tallis, H. (2016). A measure whose time has come: Formalizing time pover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8, 265-283.

투고일자: 2025. 4. 25.

심사일자: 2025. 5. 27.

게재확정일자: 2025. 6. 11.

Effect of Time Poverty in Dual-Income Couples on Women's Work-Family Balance Satisfaction

YouRa Oh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ime is a finite resource, but its distribution and use vary by gender, social status, and class. Accordingly, the concept of time-poverty, which expresses the insufficient free time given to lead a humane life, emerged. Drawing on the premise that time use differs significantly by gender,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mong dual-income couples affects women'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family balance. Using data from the 9th wave(2022)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KLoWF),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research model.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omen's experience of time-pover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work-family balance satisfaction. Second, women's subjective perceptions of family life, such as happiness and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work-family balance satisfaction. Third, among family-related variable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omen's work-family balance satisfac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persistent gender disparity in time use within dual-income households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institutional and policy-level interventions to alleviate time poverty and promote gender-equitable family support systems.

Keywords: dual-income couples, time poverty, women's work-family balance,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